동기면담 구성요소에 따른 잇솔질 교육의 분석

Analysis of Tooth Brushing Instruction according to Component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임 순 연, 강 수 경 ,이 수 영*,
남서울대학교

Lim soon-ryun, Kang soo-kyung, Lee su-young*
Namseoul University

요약

치과위생사들이 구강보건교육내영의 활용에서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은 잇솔질 교육이지만 환자가 올바른 잇솔질을 행하는 실천률이 저조한 것은 환자의 동기유발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잇솔질 교육을 녹음하여 환자의 동기를 이끌어내고 행동의 변화를 유지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동기면담의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 서론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에서 시행하는 구강보건교육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잇솔질 교육이다. 잇솔질과 치실과 같은 구강보조용품의 사용은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잇솔질 방법의 실천과 추천된 구강보조용품의 사용이 저조한 것은 환자의 동기유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강보건교육자는 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환자의 구강상태와 행동단계를 관찰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상담과 의료장면에서 새로운 행동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하는데 효과적으로 입증된 동기면담은 William R Miller와 Stephen Rollink이 발전시킨 지시적이고 내담자 중심적인 상담스타일[1]로 임상연구를 통해 내담자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2][3]. 구강보건교육에서도 환자의 변화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리적 모델로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어왔다[4]. 또한 동기면담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기면담치료도구 부호화시스템(Motivational interviewing treatment integrity coding system, MITI)이 개발되어 임상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5]. MITI의 구성요소는 동기면담의 기본원리와 말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기면담이 치위생교육과정에 도입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구강보건교육시 동기면담과정을 응용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현재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에 의해 진행되는 잇솔질교육을 녹음한 후 MITI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동기면담 교육자료의 기초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2014년 6월에 치과에 근무하는 38명의 치과위생사를 편의 추출하였다. 스케일링 전후에 시행하는 잇솔질 교육을 환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파일을 전송받았다. 녹음 파일은 문서화하였으며 총 교육시간을 기록하였다. 38명중 17명은 환자와의 대화없이 일방적 교육하여 동기면담 구성요소에 따른 분석은 21명의 녹음파일에서 수행하였다. 동기면담구성요소는 Motivational interviewing treatment integrity coding system(Ver 2.0)을 참고로 하여 항목을 정리하였다. 문서화된 녹음파일을 항목에 따라 기록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 독립 T검정, Spearma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교육방식에 따른 교육시간의 차이

전체 38개의 평균 교육시간은 138.82초이며 대화가 없는 일방적 교육의 평균 교육시간은 72.71초 대화형 교육의 평균시간은 192.33초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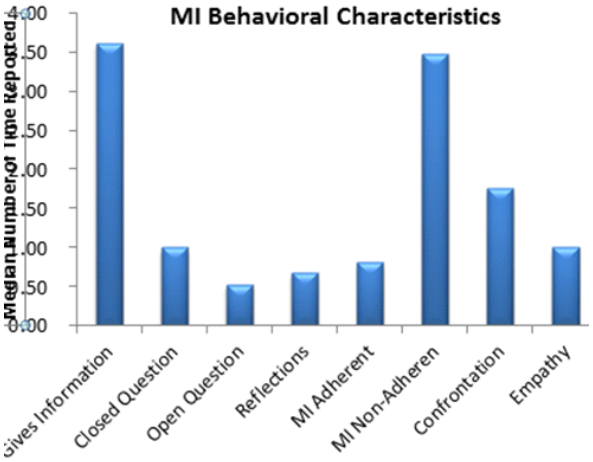
대화형 교육과 일방적 교육의 교육시간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의 교육시간의 차이가 있었다($p<0.001$).

표 1. 교육방식에 따른 교육시간의 차이

Instruction without dialogue		Instruction with dialogue		p
N(%)	M(SD)	N%)	M(SD)	
17 (45)	72.71 (50.83)	21 (55)	192.33 (112.82)	.000

2. 동기면담 구성요소의 평균

동기면담 구성요소의 빈도수에서 정보주기는 평균 3.62회, 닫힌 질문은 1회, 열린 질문은 0.52회, 반영은 0.68회, 직면은 1.75회 공감은 1회로 나타났다. MI불일치는 3.48회, MI일치는 0.81회로 나타났다.



▶▶ 그림 1. 동기면담구성요소 평균

3. 동기면담 구성요소의 상관관계

열린 질문과 반영, 공감이 많을수록 MI 일치가 높았고 정보제공이 많을수록 MI 불일치가 높았다. 직면과 MI 일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2. 동기면담구성요소의 상관관계

	Give information	Closed question	Open question	Reflection	MI adherent	MI non-adherent	Confontaion	Empathy
Give information (1)	1.000							
Closed question (2)	.257	1.000						
Open question (3)	-.362	-.188	1.000					
Reflection (4)	-.014	-.115	.533*	1.000				
MI adherent (5)	.087	-.005	.525*	.615**	1.000			
MI non-adherent(6)	.907**	.219	-.417	-.062	-.067	1.000		
Confontaion (7)	-.053	.040	-.374	-.368	-.486*	.105	1.000	
Empathy (8)	-.012	.024	-.053	.272	.448*	.034	-.197	1.000

* p<0.05, ** p<0.001

Ⅳ. 결론

38명의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전후에 시행하는 잇솔질 교육을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일방적 교육자는 17명으로 45%, 대화를 하면서 교육한 교육자는 21명으로 55%이었다. 교육시간의 평균은 138.82초, 일방적 교육의 평균 교육시간은 72.71초 대화형 교육의 평균시간은 192.33초로 나타났다. 둘째, 대화형 교육과 일방적 교육 집단의 교육시간의 차이가 있었다($p<0.001$). 셋째, 동기면담 구성요소의 빈도수에서 정보주기가 평균 3.62회로 가장 많았으며 MI불일치는 3.48회, MI일치는 0.81회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제공이 많을수록 MI 불일치가 높았는데 이는 정보주기가 환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과위생사의 잇솔질 교육은 환자의 동기유발과 변화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1] MIller W. and Rollink S., Motivational Interviewing ; Preparing people for change, pp 25, Guilford Press, NY, 2002.

[2] 하영선, 최연희, 동기면담 금연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금연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과학회 42권 1호 pp19-27, 2012

[3] Carels A. et al., "Using motivational interviewing as a supplement to obesity treatment: a stepped-care approach," Heath Psychol, Vol.26, No. 3, pp. 369-374

[4] Croffoot C. et al., "Evaluating the effects of coaching to improve motivational interviewing skills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Vol. 84, No. 2, pp. 24-31

[5] 신수경, 조성희, 동기면담의 실제, pp. 202-214, 시그마프레스, 서울, 2009.